

'홀로그램 아트&갤러리쇼' 전시 성황

익산시, 28일까지 익산예술의전당서 전시·체험형 콘텐츠 진행... 개막 일주일 만에 4000여명 방문

홀로그램 선도시 익산에서 열린 '홀로그램 아트&갤러리쇼'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개막 일주일 만에 4,000여 명이 다녀가며, 홀로그램 기술의 대중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익산시는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홀로그램 아트&갤러리쇼'에 지난 14일 개막 이후 4,000여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오는 28일까지 열리며, 최신 홀로그램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번 전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 지원을 바탕으로 개최되며, 홀로그램 관련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기획·운영하고 있다.

기업들은 최신 기술을 선보이며 제품 상용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협업 기회를 모색하는 등 홀로그램 산업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단순한 전시를 넘어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마련해 실감형 경험을 제공한다.

익산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더욱 쉽게 홀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전시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내 체험 공간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익산청년시청, 익산석제품전시홍보관, 익산역 등 주요 거점에서 홀로그램 쇼룸과 체험관을 운영하며, 방문객들에게 최첨단 기술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홀로그램 선도시 익산에서 열린 '홀로그램 아트&갤러리쇼'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홀로그램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전시와 상호작용(인터랙티브) 체험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해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문화·관광·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홀로그램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전시 외에도 연중 다양한 홀로그램 관련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특히, 매년 개최되는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은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가미한 대표 행사로 자리 잡았다. 오는 9월 개최될 예정으로 더욱 다양한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을 추가해 볼거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홀로그램을 활용한 공연, 전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문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시는 홀로그램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홀로그램 콘텐츠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남원미술협회 새로운 도약 이룰 것"

김광길 신임 지부장 당선



사)남원국제도자에술연구센터 김광길 이사장이 제15대 남원미술협회 지부장에 당선됐다.

남원미술협회는 지난 18일 남원예술회관 회의실에서 실시된 제15대 지부장 선거에서 단독 후보로 출마한 김광길 이사장이 무투표 당선됐다고 밝혔다.

김광길 당선인은 조선대학교 산업미술과와 동 대학원 산업공예학과 졸업하고 전북대학교 디자인제조공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과 전라남도

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서남대 교수로 역임한 김 당선자는 사단법인 남원국제도자에술연구센터 이사장과 남원국제도예협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심임 김광길 지부장은 "남원미술협회는 오랜 전통과 가치를 지닌 예술 공동체로,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협회가 더욱 발전하고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새로운 도약을 강조했다.

또한 "남원미술협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내의 전시회 확대 등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작가 양성 등 남원미술협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과 함께 남원미술협회의 새로운 도약을 이룰 것"이라며,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챌린지 동참

전북여성가족재단 전정희 원장

전북여성가족재단 전정희 원장이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기원하는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챌린지는 전북특별자치도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도민의 응원을 모으고, 전북의 비전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1일 재단에 따르면 원장을 포함한 직원 5명이 열정을 담아 캠페인에 참여했다. 올림픽 유치 응원 이미지와 함께 촬영한 인증사진을 SNS 채널과 언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전정희 원장은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를 꿈꾸는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정희 원장은 이번 캠페인의 후속 주자로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장우철 센터장과 한국여성벤처협회 전북지회 박금옥 회장을 지목했다. /장은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국악원

전북특별자치도국악원(원장 유영대)은 지난 21일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2036 하계올림픽 전북유치를 위한 도민들의 관심과 올림픽 유치 지지와 참여를 확산시키고자 시작된 응원 릴레이이다.

성공적인 2036 하계올림픽 전북유치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들의 응원과 열정을 하나로 모아 올림픽 유치라 전북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기 위해 나섰다.

도립미술관의 지목을 받은 도립국악원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 2036 하계올림픽 K-MUSIC 수도 전북'에서라는 플래카드와 △전통이 살아있는 전북올림픽을 통한 비상 배너 △도민의 뜻 모아!



힘 모아! 2036 하계올림픽은 전북에서 등의 피켓을 들고 올림픽 유치를 적극 지지했다. 유영대 국악원장은 "오는 28일 하계올림픽 유치 대상지가 선정되도록 도민과 국악원의 여론을 결집하여 올림픽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립국악원은 다음 릴레이 캠페인 주자로 어린이창의체험관, 호성지역아동센터를 지목했다. /이만호 기자

한국·몽골 전통예술의 만남 '동행' 남원에서 펼쳐진다

국립민속국악원, 27일 한·몽 수교 35주년 기념 초청공연... LED 무대영상 활용 입체적 연출 도입 지난해보다 다채롭게 개최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27일 오후 7시, 예원당에서 한·몽 수교 35주년 기념 초청공연 '동행(同行)'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한국과 몽골의 전통예술을 한 무대에서 선보이며, 양국 간 문화적 유대를 강화하고 전통예술의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지난해 공연이 양국의 대표적인 전통 음악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면, 올해는 LED 무대영상을 활용한 입체적 연출을 도입하여 풍성하고 몰입감을 높인 무대를 선보인다.

특히, 몽골 전통음악과 무용 작품을 기존 6개에서 10개로 늘리고, 한국 전통예술 4개 작품과 함께 양국 공동 무대를 구성해 더욱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했다.

출연진은 몽골 측에서는 강볼드 발진남(후미), 몽궁(마두금), 몽호에르렘(아타그) 등 몽골 전통음악과 무용을 대표하는 예술인들이 출연하고, 한국 측에서는 국립민속국악원의 최재희(거문고), 조유선(가야금), 정승희(판소

리), 전병문(연하부), 김문영(무용단) 등이 출연하여 깊이 있는 한국 전통음악을 선보인다.

프로그램은 한국의 △산도설장구가락 △판소리 입체창 '사랑가' △거문고산조 △진도북춤 등 전통예술, 몽골 전통음악 △보르테(Burte) △긴노래(Long Song) △고비사막(Gobi Desert) 등 양국 전통예술의 조화를 보여주며,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namwon.gugak.go.kr)과 카카오톡 채널(국립민속국악원 친구추가) 및 전화(063-620-2329)를 통해 예약 및 공연 소식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중현 원장은 "동행(同行) 공연은 2023년 국립민속국악원과 몽골국립예술원이 체결한 문화교류 협약(2023~2026 문화교류 시행계획)의 결실로, 몽골의 전통예술을 더욱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 기회"라며, "이번 공연이 단순한 문화교류를 넘어, 양국 전통예술의 발전과 확장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종루(廣鍾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43)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라고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투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